

단기·장기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 - 인천광역시 사례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to Work of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 A Case Study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경승구,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Seung-Ku Kyoung(ksnine83@nate.com), Yong-Gab Lee(lankwitzer@empal.com)

요약

이 연구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 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및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취·창업 의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활근로 형태, 자활사업 참여기간, 주관적 건강 상태, 주변 지인 관계, 취·창업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및 2016년 인천광역시 10개 지역자활센터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2013년과 2016년 참여자는 장기참여자, 2016년 참여자는 단기 참여자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 센터 직원과의 친밀도, 일에 대한 태도,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었다. 장기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장애여부,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 등인 반면에, 단기참여자의 경우는 학력, 취·창업 경험여부, 자활급여 수급여부, 가족친밀도, 지역자활센터 직원과의 친밀도가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 | 자활사업 | 취·창업의지 | 탈빈곤 | 참여기간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factors influenced the willingness to work(or start-up) of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And the hypothesis is that the willingness to work of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duration of program particip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participants in 11 local self-support cente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the year 2013 and 2016. And it has been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work of long-term and short-term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affecting all participants's willingness to work (or start-up) were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of employment or start-up, availability of self-support allowance, familiarity with local self-support center's staff, attitude toward work, period of self-support subject participated. Second, long-term participants were affected by disability,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of employment or start-up, and availability of self-support allowance. Finally, in the case of short-term participants,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of employment and start-up, availability of self-support allowance, family intimacy and intimacy with local self-support center's staff were influenced.

■ keyword : | Self-support Program | Willingness to Work or Start-up | Poverty Exit | Term of Participation |

1. 서론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인 자활사업은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빈곤 계층에게 국가가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근로소득을 획득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빈곤탈출지원제도이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1], 조금이라도 일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들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접적인 고용지원프로그램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계층들은 취업을 통한 빈곤 탈출과 자립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가 매우 확실하게 탈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2]. 즉,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많으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과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 빈곤을 경험하거나, 반복적으로 빈곤과 탈빈곤을 경험할 경우 빈곤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 즉, 빈곤에 진입하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탈빈곤 하면 다시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으며, 빠르게 빈곤에서 탈출하더라도 빈곤선 주변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하여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할 경우 장기간 빈곤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3].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2008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연계, 즉 자활사업 취·창업 지향성이 지속해서 강화되었다. 그 결과, 2013년 이후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급권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실제 취·창업을 목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2], 자활프로그램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3년 이내 취·창업을 통한 탈빈곤과 자립에 성공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과 같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프로그램 개발, 취·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자체의 변화가 필요

하다[2][4].

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취·창업에 성공한, 즉, 자립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분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5-7]. 이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 자존감 등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는 선행연구 중 취·창업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존감 향상, 자립 의지 고양 등 정서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8-15]. 엄태영 외[12]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내면의 잠재된 성장과 발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이 제고되어 결과적으로 탈빈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정서적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하였고, 이형하 외[8]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그들의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송인한 외[10]는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의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등 정서적 자활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을 평가할 때 탈빈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제하는 근로 의지, 자존감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들은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례관리, 인문학·교양강좌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이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활성공률, 또는 탈수급률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직접적이고,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급여 자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통한 경제적 탈빈곤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16].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정서적 변화 노력과 탈빈곤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효과를 보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탈빈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취·창업을 경험한 사람에 관해 연구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자활사업을 통해 취·창업을 경험하여 자립한 사람에

대한 조사분석도 대단히 어렵다. 이에 따라, 취·창업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취·창업 의지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취·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및 2016년 시행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변수인 ‘일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의 영향을 분석하고, 취·창업 의지에 공공부조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기간, 또는 반복 빈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참여 기간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이들의 취·창업의지 차이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취업의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일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며[17], 소득획득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및 직업을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18]. 취업 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19]. 취업의지는 취업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어 취업으로 연결되는 등 취업에 있어서 취업의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확인하고 있다[20-23].

선행연구결과 취업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요인들로는 적절한 정보 제공,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 높은 수준의 전공몰입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 경력개발 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23-26], 노인의 경우 낮은 경제력, 건강, 시간 보내기 등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여부, 과거 고용형태 등이 취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27-29].

반면에,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취·창업의지를

직접 묻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취·창업의지를 직접 묻기 보다는 취·창업의지를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인 자존감, 일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취·창업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11][30-33]. 취·창업 의지는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탈수급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취·창업 의지를 통해 탈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의지와 창업의지는 원론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취업의지는 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취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50][51]. 반면 창업의지는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고 그것 관련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52]. 즉, 취업의지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창업의지는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임금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창업의지를 함께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탈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연령, 혼인상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또는 근로경험, 취업가원 수, 취학아동 유무 혹은 아동의 연령, 수급기간 등이다[34-36]. 일반적으로 남성, 높은 교육수준, 낮은 연령, 비한부모가구, 미혼, 안정적인 종사상 지위 등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탈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자활사업 참여 기간도 탈수급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으며, 반면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탈수급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있다.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탈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일반적으로는 연령, 학력, 근로경험 유무, 학령기 자녀 유무이다. 또한, 건강인식을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활의지를 분석할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취·창업 의사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취·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다[37].

하지만, 자활사업 참가자 취·창업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창업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취·창업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가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취·창업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자기존중감, 일에 대한 태도 등 확인하는 간접적인 질문을 주로 이용하였다.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창업 의지를 직접 묻는 것보다는 정서적 부분을 통해 취·창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38]. 때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가로 참여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일에 대한 태도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이 경우는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하거나 자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39]. 전국의 대다수 지역자활센터들이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의 장기 참여자나 반복참여자가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자활사업 장기참여를 억제하고자 2013년부터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는 자활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자활사업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지침변경은 자활사업의 예산조정문제도 있지만, 자립의지 제고나 일 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가 반드시 성공적인 취·창업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활사업 장기참여 문제

근로빈곤계층 가구의 60% 이상이 1년 이내에 다시 빈곤에서 벗어나지만, 그 이후 다시 빠르게 빈곤상태로 추락하는 '빈곤-탈빈곤-재빈곤'이라는 악순환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빈곤계층은 형식적으로는 일시적인 빈곤층일 수 있지만 [40], 탈빈곤 가구 대부분이 빈곤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빈곤화 가능성은 매우 높고[42], 이들은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한 사회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3][41]. 탈빈곤의 어려움이 자활사업에의 장

기참여와 연결되는 것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경우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탈빈곤이 아니라, 빈곤상태에서의 비자발적인 제외 가능성 및 일정 기간 후 다시 빈곤상태로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3]. 반복적인 (재)빈곤화는 빈곤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또한 빈곤상태에 빠진 가구가 단기간 내에 빈곤탈출을 하지 못하면 빈곤상태에 고착될 위험성이 높다[3]. 선행연구에 의하면 1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 가구의 약 1/4 정도는 장기적으로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41].

자활사업 참가자들도 장기 빈곤계층이 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자활사업 참가자 대부분은 곧바로 취·창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들로써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장기간 참여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재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창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39].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장기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종료와 함께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선행연구 중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장기참여자로 구분하거나, 이들을 3년 이내 단기참여자와 비교하는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최근 자활사업 참가자 범주가 기존의 생계급여나 자활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일반인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그 의미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자활사업의 빈곤계층에 대한 취·창업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탈수급률에 취·창업률이 포함된 자활성공률이 자활사업 평가기준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공개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은 어느 특정의 한 시점에서 단기적인 참가자의 결과만이 공개되어, 자활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또는, 반복 참가자들의 취·창업 현황을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의 11개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는 2016년 6월 현재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가자 1,532명의 약 69.8%인 1,069명이었다.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는 약 57.3%인 87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취·창업 의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3년 이상의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같은 설문지로 같은 조사방법으로 실시한 2013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3년 전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 197명을 확인하여, 이들을 장기참여자로 구분하였다. 이들과 비교분석하는 대상인 단기참여자는 2016년 설문조사에서 3년 전 및 그 이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STATA 13.0을 이용하여 2016년 자활사업 참가자, 2013년부터 2016년에도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취·창업 의지를 분석하고, 이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3년 이상 자활사업 장기참여자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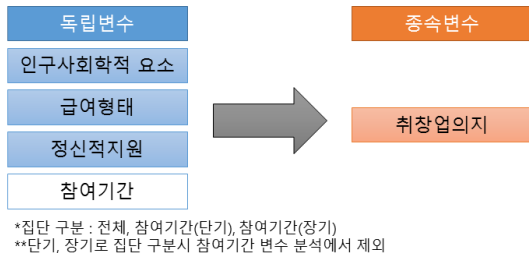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 변수

본 연구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활의지를 취·창업 의향 여부 및 지난 3년간 취·창업 시도 여부로 확인하고자 ‘취·창업의지’를 취·창업 의사가 있음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한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형태’, ‘주변의 정신적 지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라는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 연령,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만성질환여부, 학력, 취·창업경험, 1인당 가구원소득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성별’ 변수는 남성은 ‘0’, 여성은 ‘1’로, ‘장애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으면 ‘0’, 장애가 있을 경우 ‘1’로,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으면 ‘0’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1’로, 자활사업 참가이전에 일반기업 등에서 ‘취·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연령’은 연속변수 형태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6으로 코딩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은 초등학교 졸업자에 3을 더해 9로 코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연속변수로, ‘가구원소득’의 경우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표 1. 변수 목록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독립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소	성별	0. 남성, 1. 여성	더미변수
		연령	연속변수	연속변수
		장애여부	0. 장애 없음, 1. 장애 있음	더미변수
		가구주여부	0. 가구원, 1. 가구주	더미변수
		만성질환여부	0. 없음, 1. 있음	더미변수
		학력	연속변수(예 : 초등학교 졸업=6)	연속변수
		취·창업경험	0. 없음, 1. 있음	더미변수
	급여 형태	가구원소득	연속변수	연속변수
		생계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의료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주거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교육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정신적 지원*	자활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가족친밀도	가족친밀도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센터친밀도		센터친밀도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일 태도		일 태도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참여 기간	자존감	자존감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연속참여여부	0. 비연속참여(단기참여자), 1. 연속참여(장기참여자)	더미변수	
종속 변수	취·창업 의지	취·창업의지	0. 없다, 1. 있다	더미변수

*가족친밀도, 센터친밀도, 일 태도, 자존감은 5점 척도임.
(5점 척도 : 1=거의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거의 그렇다)
**더미변수의 경우 '0'의 값이 기준변수임.

두 번째 독립변수 범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형

태(급여형태) 변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설문조사 응답 시기인 2016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의 수급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5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항목을 급여를 받고 있으면 '1'로 코딩하였으며 받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범주인 '주변의 정신적 지원' 변수는 '가족 친밀도',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 '지난 1주일간 일에 대한 태도', '자존감'으로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뜻한다. 가족 친밀도는 8개 문항,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는 7개 문항, 일에 대한 태도는 10개 문항, 자존감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네 번째 독립변수 범주인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자활사업 연속참여 여부가 해당한다. 2013년 설문조사와 2016년 설문조사 모두에 응답한 참여자는 3년간 자활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 참여자로 구분하여 '1'로, 2016년도 조사에만 응답하였으며, 2013년도 이전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은 '단기' 참여자로 구분하여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단기 참여자와, 장기 참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이 변수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분석대상자는 878명 중 2013년 및 2016년 설문조사에 동시에 참여한 장기참여자자는 22.4%인 197명이며, 2016년 설문조사에만 참여하였으며 이전에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없는 단기참여자자는 77.6%인 681명이다. 분석대상자를 '전체' 참가자, '장기' 참가자 및 '단기' 참가자라는 3개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전체 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63.7%로,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전국 여성비율인 56.3%보다 높다 [49].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경우 여성 비율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여성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활사업 참가자 전체의 평균 연령은 52.8세, 학력은 고졸이 52.2%, 가구주인 경우가 83.0%, 장애가 없는 경우가 86.7%,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54.0%로 전국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49]. 또한, 자활사업 참여 이외의 소득활동을 한 경험(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69.7%이며, 1인당 가구 월 평균소득은 46.9만 원이었다.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와 단기참가자를 비교할 경우, 장기참가자의 연령이 약 5세 정도 많으며, 장기참가자의 취·창업 경험이 약 6% 정도 낮은 수준이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단기참가자와 장기참가자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전체 (N=878명)		단기참가자 (N=681명)		장기참가자 (N=197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317	36.31	267	39.32	49	24.87
	여성	556	63.69	412	60.68	148	75.13
	합계	873	100.00	679	100.00	197	100.00
학력	무학	32	3.79	23	3.52	12	6.25
	초졸	96	11.36	81	12.4	18	9.38
	중졸	183	21.66	144	22.05	38	19.79
	고졸	441	52.19	337	51.61	100	52.08
	대졸	89	10.53	66	10.11	22	11.46
	대학원졸	4	0.47	2	0.31	2	1.04
	합계	845	100.00	653	100.00	192	100.00
가구주 여부	가구원	137	17.00	105	16.85	31	16.76
	가구주	669	83.00	518	83.15	154	83.24
	합계	806	100.00	623	100.00	31	16.76
장애 여부	장애 없음	696	86.67	539	86.8	160	86.49
	장애 있음	107	13.33	82	13.2	25	13.51
	합계	803	100.00	621	100.00	185	100.00
만성질환 여부	없음	422	54.03	329	54.29	93	53.14
	있음	359	45.97	277	45.71	82	46.86
	합계	781	100.00	606	100.00	175	100.00
취·창업 경험	없음	449	69.72	330	68.18	119	74.37
	있음	195	30.28	154	31.82	41	25.63
	합계	644	100.00	484	100.00	160	100.00
변수	빈도	평균 (S.E)	빈도	평균 (S.E)	빈도	평균 (S.E)	
연령	833	52.82 (35.66)	639	51.60 (9.05)	194	56.84 (72.05)	
1인당 가구월평균소득(만원)	786	46.92 (27.45)	607	47.64 (27.65)	183	45.72 (26.77)	

전체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 급여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33.4%, 의료급여 64.7%, 주거급여 47.1%, 교육급여 24.7%, 자활급여 59.1%이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들 중 약 60%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이며, 나머지 40%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자활사업 참가자들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급여수급자의 탈빈곤지원제도에서 빈곤계층의 취·창업지원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의 경우 5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 급여종류 모두에서 수급자 비율이 단기참가자보다 높은 수준이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는 단기참가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별 수급자 비율

변수	전체 (N=878명)	단기참가자 (N=681명)	장기참가자 (N=197명)
생계급여	33.41%	30.96%	42.02%
의료급여	64.70%	63.58%	68.62%
주거급여	47.11%	45.83%	51.6%
교육급여	24.73%	22.53%	32.45%
자활급여	59.05%	58.75%	60.11%

취·창업 의향이 있는 자활사업 참가자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61.2%, 자활사업 장기참가자는 53.0%, 단기참가자의 경우는 63.7%이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단기참가자들이 장기참가자들보다 취·창업 의사가 보다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취·창업 의지

구분	취·창업 의지 있다
전체(N=878)	61.19
단기참가자(N=681)	63.74
장기참가자(N=197)	53.04

정서적 특성을 5점 척도로 분석하며, 가족친밀도는 평균 2.99인 반면에, 지역자활센터 친밀도는 이보다 높은 3.24이다. 자존감은 3.15이며, 일에 대한 태도는 3.80으로 정서 변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와 단기참가자를 비교할 경우, 자존감·일 태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각각 3.15, 3.8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 친밀도의 경우 장기참가자의 점수가 단기참가자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 5. 정신적 지원 정도*

변수	전체 (N=878명)	단기참가자 (N=681명)	장기참가자 (N=197명)
가족친밀도	2.99(1.05)	2.94(1.03)	3.11(1.08)
센터친밀도	3.24(0.84)	3.24(0.82)	3.26(0.86)
자존감	3.15(0.38)	3.15(0.39)	3.15(0.34)
일태도	3.80(0.56)	3.81(0.58)	3.81(0.54)

*5점 척도 기준 평균(표준편차)

자활사업 장기 및 단기 참가자를 비교할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장기참가자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창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장기참가자들의 경우 여성과 높은 연령, 자활사업 이외의 취·창업 경험이 자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의 취·창업 의지가 단기참가자와 비교하여 10% 이상 낮은 수준인 것이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취·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단기 참가자 모두를 포함한 2016년 6월 기준 참가자 전체[모델 1]과 참여기간으로 구분한 장기참가자[모델 2], 단기참가자[모델 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 가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이다.

자활사업 참가자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소 중 성, 학력, 취·창업 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중 자활급여 수급, 주변의 정신적 지원 중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와 일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 자활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역 자활센터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자활사업에 단기간 참여했을수록 취·창업의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들이 여성보다는 남성,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경우에 탈수급 확률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다[44-46]. 반면에, 취·창업 경험이 탈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34-36], 본 연구의 분석결과 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취·창업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자활사업 참가자 취창업 의지 영향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장기)		모형2(단기)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898	6.672	.594	1.811	2.896*	18.099	
인구 사회학 요소	성별	-.436*	.647	-.386	.680	-.459	.632
	연령	-.006	.994	-.005	.995	-.012	.988
	장애여부	-.506	.603	-1.612*	.200	-.208	.812
	가구주여부	-.136	.872	-1.085	.338	.002	1.002
	만성질환여부	.023	1.024	-.605	.546	.066	1.068
	학력	.159***	1.173	.418***	1.519	.111**	1.118
	취·창업 경험	-1.082***	.339	-2.908**	.055	-.921**	.398
	가구원소득	-.002	.998	.003	1.003	-.002	.99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형태	생계급여	-.252	.777	-.728	.483	-.210	.810
	의료급여	-.082	.921	.218	1.243	-.156	.855
	주거급여	.143	1.153	1.069	2.912	.008	1.008
	교육급여	.092	1.096	-.397	.673	.351	1.420
주변의 정신적 지원	자활급여	-.511**	.600	-1.099**	.333	-.585**	.557
	가족친밀도	.161	1.174	-.412	.662	.236*	1.266
	센터친밀도	-.327**	.721	-.052	.950	-.372**	.689
	일태도	.296*	1.345	.573	1.773	.291	1.337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존감	-.007	.993	.677	1.968	-.206	.813
	연속참여여부	-.594**	.552				
-2 Log likelihood	567.743		119.284		427.529		

*=p(0.1), **=p(0.05), ***=p(0.001)

자활사업 참가자가 지역자활센터 직원들과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자활센터 직원과 자활사업 참가자가 서로 친밀할 경우 취·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이 탈수급을 방해한다는 분석이 있지만[36][43][47],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활급여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은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실시에서 중요하게 요소로 간주되며, 정서적 자활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바와 같이, 본 연구도 일에 대한 태도는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11][30-33][38].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취·창업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의 취·창업의지를 분석한 [모형 2]의 경우 장애여부, 학력, 취·창업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된다. 반면에, 자활사업 단기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 3]의 경우 장애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 친밀도는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된다.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와 단기참가자의 장애여부 비율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장기참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처음 참여했을 때는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하게 되면 취·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희망했지만, 실제로 자립하려고 하니 장애로 인하여 취·창업이 어려워기 때문에 취·창업 의지가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취·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취·창업 의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는 취·창업 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근로환경, 처우 등이 과거 취·창업 경험으로 알고 있음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취·창업 경험이 취·창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 중 과거 취·창업 경험자들의 과거 근무형태 및 그만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근무형태의 경우 규칙적인 전일

제 근무를 경험한 사람이 41.0%, 규칙적인 시간제 근무 경험이 41.5%로 나타나 단순 일용직보다는 기간제 근무로 경험이 많았다. 취·창업을 그만둔 이유는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세 개의 비교집단 모두 가장 많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다른 사람 눈치를 덜 살피고, 실적이거나 근태 등에 대한 압박 강도가 약하고, 현재의 학력이나 기술, 나이 등을 고려한 취·창업 가능성, 취·창업이후 보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을 고려한다면 자활사업에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자활사업 일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의사도 확인된다[39].

정서적인 부분의 경우 ‘일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의 경우 전체 참가자일 경우 영향이 있는 반면에, 장기참가자와 단기참가자로 구분한 경우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부분에서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친밀도의 경우 단기참가자의 경우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 친밀도가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참가자는 정서적인 부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차이를 보였다.

V.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2013년 및 2016년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두 차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자활사업 참가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3년 이상 장기 참가자 및 2016년 단기 참가자로 구분하여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력은 높은 수준에서 취·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취·창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아닌 일자리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험과 비교한 일반 노동시장 참여의 두려움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취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참여 등을 통한 취·창업기회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자활급여 수급만이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 중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자립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유지를 위해 참여했을 뿐이거나, 급여의 보충성으로 인해 총소득에 변화가 없으므로 자립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36][43][47][48].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새로운 형태의 개별급여는 취·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활급여의 경우 장기참가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친밀도는 취·창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단기참가자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장기참가자에게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영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가자가 자신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 같은 경력개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가 취·창업의지 증진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일에 대한 태도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장기·단기참가자로 구분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할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짧으면 취·창업 의지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 노동시장에의 참가와 실습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및 2016년 인천 소재 전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참가자 대상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3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설문 조사한 광역지자체단위에서 11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설문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자활센터 실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답할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와 인천광역시청이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작성 교육을 한 후 설문조사 실시 자체를 각각의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수행의 장단점 때문에 자활사업 급여액이나 과거 취·창업이나 이와 관련한 사업체에 대한 정보 등 보다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조사에 포함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취·창업 의지 그 자체와 관련한 다양한 본 연구의 해석이 더욱 풍부하고, 더욱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들 및 단기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이 실제 희망하는 자활육구의 실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관련 연구에서 시도되지 못한 분야인 자활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여 장기간 자립에 성공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져야 자활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노대명, “한국자활사업의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제53호, pp.62-99, 2002.
- [2] 박창균, 이철인,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9권, 제3호, pp.149-186, 2011.
- [3]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4권, pp.187-210, 2004.
- [4] 정원오, 김진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8권, pp.35-67, 2005.
- [5] 백학영, 조성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pp.143-178, 2012.
- [6] 김정원, 전세나, 김정자, 조성은, 백학영, 김경휘, 2012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13.
- [7] 유태균, 윤성원,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삶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1호, pp.85-108, 2012.
- [8] 이형하, 조원탁, “한국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권, pp.217-244, 2004.
- [9] 박장호,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의 정서적지지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0] 송인한, 박장호, 김리자,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차이: 남성과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7권, 제3호, pp.457-474, 2012.
- [11] 도유희, 이상록,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직효능감 결정요인: 전북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5권, 제3호, pp.65-94, 2013.
- [12] 엄태영, 임진섭, “자활사업 참여자의 조직현신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0권, 제2호, pp.9-34, 2013.
- [13] 김우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참여기간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의 조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4] 이형하,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23권, 제1호, pp.107-110, 2015.
- [15] 장용언,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응집력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pp.127-156, 2015.
- [16] 유태균, “자활사업 참여가구 중 근로가구와 비근

- 로 가구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제22권, pp.161-199, 2003.
- [17] VAN DONGEN, Carol J,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in working and nonworki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32, No.6, pp.535-548, 1996.
- [18] J. S. Strauss, “Subjective experiences of schizophrenia: toward a new dynamic psychiatry- II,” *Schizophr Bull*, Vol.15, pp.179-187, 1989.
- [19] N. Krueger,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Vol.18, No.1, pp.5-21, 1993.
- [20] 김정환, 황혜자, 설기문, 박영태, 최은영, “대학생의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제22권, pp.39-104, 1994.
- [21] 김형균,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2]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23] 김경화, 민하영,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pp.73-82, 2007.
- [24] 이상호, “직업이해, 학교생활만족, 역량강화교육이 교육지원서비스와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pp.167-177, 2016.
- [25] 반태현, “회계전공 대학생의 교육성과와 전공몰입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70집, pp.349-374, 2016.
- [26] 서영, 정종삼,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지원서비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p.267-279, 2017.
- [27] 장지연, 호정화, “여성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한국사회학*, 제35권, 제4호, pp.159-188, 2001.
- [28] 김학주, 우경숙,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4권, 제2호, pp.97-110, 2004.
- [29] 성지미, 안주엽, “중 고령자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원*, 제6권, 제1호, pp.39-74, 2006.
- [30] 노회경, *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1] 김도근, *저소득층의 창업욕구에 관한 연구: 인천지역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2] 임진섭, 최장원, 장용언, “자활사업 참여자의 창업의지에 발생경로에 관한 연구: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집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3호, pp.27-55, 2011.
- [33] 권민숙, 윤영석, 김근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pp.435-454, 2012.
- [34] M. Bane and D. Ellwood, *Welfare realities : from rhetoric to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35] A. Bergmark and O. Backman, “Stuck with welfare? long-term Social Assistance recipiency in Swede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20, No.5, pp.425-443, 2004.
- [36] 노대명, 원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7집, pp.333-360, 2011.
- [37] 이석환, 장소현, 최동국, 이용갑, “건강인식 자활사업 참여자집단들의 자활의지 영향요인 비교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36집, pp.133-156, 2014.
- [38] 엄태영,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및 정서적 자활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6권, pp.191-220, 2012.

[39] 이용갑, 경승구, 근로빈곤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7.

[40] 금재호, 김승택,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제8권, 제2호, pp.511-539, 2001.

[41] 김교성, 노혜진, “빈곤탈피와 지속기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185-212, 2009.

[42] 이병희, 정재호,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52호, pp.128-150, 2002.

[43] 구인회, 강병구, 이현주, 안서연, 이원진, 탈수급 및 수급예방을 위한 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44] 지은경,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pp.147-174, 2007.

[45] 이병희,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동학,” 경제발전연구, 제16권, 제1호, pp.93-116, 2010.

[46] 이병희, 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47] 이수창, 김진홍, “시간의존 콕스회귀분석을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1권, 제2호, pp.251-269, 2017.

[48] 김윤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론과 제도의 친화성,”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4호, pp.117-151, 2016.

[49] 사회보장정보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5, 2015.

[50] 한상숙, 한정혜, 윤은경,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제38권, 제4호, pp.541-549, 2008.

[51] 이만기, “특성화고 고졸청년층의 진로준비 및 진로성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4961-4971, 2014.

[52] 조영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창업교육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1호, pp.197-208, 2014.

저 자 소 개

경 승 구(Seung-Ku Kyoung)

정회원



- 2013년 8월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현재 : 인천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이 용 갑(Yong-Gab Lee)

정회원



- 1997년 7월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박사)
- 2011년 7월 ~ 현재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노인요양제도